

우수교육도시 감천문화마을 배우러 왔어요

유네스코·IAEC 국제교육도시 감천문화마을 벤치마킹



3월 16일 감천문화마을에 국제교육도시 관계자 40여명이 방문했다. 3월 14~15일 양일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교육도시 &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 정례회의에 참가한 국제교육도시의 행정가들이다. 2016년 IAEC 세계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한 감천문화마을의 교육을 통한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한 것이다.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행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낙후된 마을이 교육과 문화예술로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이사벨(지로나시 부시장)씨는 “수익원을 만들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마을에 재투자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사하구 평생학습과

“내가 만든 작품 보면 좋아요”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수공예방, 하모니카 수업 인기

사하구와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업하는 ‘수수(手手)공예방’과 ‘하모니카 하모니카 연주단’이 그것이다.

3월부터 시작한 ‘수수공예방’은 코르크아트, 냅킨아트, 타일아트 등 다양한 공예활동이 이뤄진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30회 진행된다. 정원은 12명이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하구에 등록된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수강생들은 일찍 와서 이런 저런 답소를 나누며 강사를 기다린다. 배영희(57, 다대동)씨는 “수업이 없으면 집에서만 있을 텐데 여기 오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신나요. 만들기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라고 환하게 웃었다. 수업시간에도 수강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업에서 만든 코르크 액자, 휴지걸이, 천하대장군 장승 등은 4월 장애인권익증진문화축제에 전시하였다. 또한 하반기 사하구장애인문화의거리 작품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신채연 강사는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만들기 어렵다, 못한다고 도와 달라 하시는 참여자들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은 스스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서로 자랑하시는 모습에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모니카 하모니카 연주단’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진행된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악보와 음계 익히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수업한 덕에 현재는 하모니카 연주기법을



익히고 합주 연습까지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연습한 곡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 무대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인근요양병원 공연을 비롯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도 이어간다.

이외에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면 좋겠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사하구 곳곳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래본다.

문의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262-2461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 간
토탈공예 '수수공예방'	화	10:30~11:30
원예교실 '꽃보다그대'	수	13:30~14:30
내인생의 황금기	목	14:00~15:00
하모니카 교실	목	10:30~11:30
제과제빵 '빵빠레'	월	10:30~11:30
캘리그라피 교실	화	13:00~14:00
푸드테라피 맛있는 여행	월	13:30~14:30
전래놀이활동 '신토불이'	목	10:30~11:30
노래교실 '하하호호교실'	목	13:00~14:00
요가교실	금	13:30~14:30
국학기공	금	10:30~11:30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

사하구 다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사하구는 부산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면서 지난달 출범식과 함께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열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교와 마을이 만나 아이들을 키운다는 취지로 초, 중, 고등학교 대상 21개 사업을 펼친다.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ha.go.kr/happyedu/)'도 개설하였다.

센터 홈페이지를 열면 ‘학교와 마을이 만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사하’라는 비전과 프로그램 신청, 차량 신청 배너가 눈에 들어온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행복지구사업 안내와 프로그램 정보, 신청 등 센터-학교-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홈페이지에는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안내부터 사업소개, 프로그램 신청, 커뮤니티 공간, 정보마당이 담겨 있다.

학교는 사하자연학교, 역사학교 같은 지역 연계 체험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버스 등을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나 마을교사들의 동아리모임, 교육현장스토리, 체험후기, 공지사항, 이달의 행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학교와 주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 구민으로서 마을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학교와 마을교사의 연결 통로가 될 마을활동가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5월 예정인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 신청해보기 바란다.

문의 : 사하 다행복교육지원센터 220-4931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사하아카데미 양재진 초청 '스트레스 그리고 나' 참가 후기

자존감을 높이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지난 3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80회 사하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의 '스트레스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꽃샘추위와 비바람으로 전국이 춥고 힘든 날이었지만 강당을 메우고도 남을 인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와 유형 그리고 해결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스트레스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신적 환경적 영향을 말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나와 환경, 둘 중 하나

나를 바꾸면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아성찰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나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의 단점과 참모습을 찾아서 고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지 않게 된다. 즉,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은 불안감과 긴장도가 낮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감과 긴장도가 높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성격이다. 성격은 태어나면서 50%가 정해지고 유아기에 25%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25%의 성격은 본인의 노력으로 확장 조절하면서 훌륭한 인성으로 성숙한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과 본인의 의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는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자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인맥이나 명품, 외모 성형과 같은 허세를 중요시한다. 두 번째 자아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꾸밈없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유형이다. 대다수의 자아가 여기에 해당하며 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세 번째 자아는 자존감이 높다. 자아성취감을 갖고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을 얻는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하고 기부의 자세를 지닌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바람직한 자아다. 사람은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한다고 여길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아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적은 없다. 하지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 내 성격의 75%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나머지

25%를 위해 함께 공부하고 일하던 학우와 동료들이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제82회 사하아카데미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가족수업

일시 : 5. 16.(수) 15:00~17:00
장소 :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

강사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중

- 현 한국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건강가정시민연대 공동대표
- MBN <황금알>, <세대격돌! 대화가 필요해>



성인문해로 다시 쓰는 인생

평생 걸린 '늦게 보내는 편지' 발간

사하구는 지난 2월 성인문해 시화집 '늦게 보내는 편지'를 발간하였다. 지난해 열렸던 제1회 성인문해골든벨 및 시화전에서 소개된 48명의 작품 50편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쓰는데 평생이 걸렸으니 늦게 보내는 편지가 맞을 듯하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았으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등 사연들도 다양하다. 빼빼돌 글자를 쓰고 맞춤법도 맞지 않지만 연륜이 배인 진솔한 글은 읽는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늦게 보내는 편지는 50편의 작품 외에 성인문해의 개념과 중요성, 문해교육의 종류, 사하구의 성인문해 현황과 성인문해 기관을 소개한다. 이 시화집은 300부가 발간되어 관내 성인문해기관과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되었다. 이 시화집 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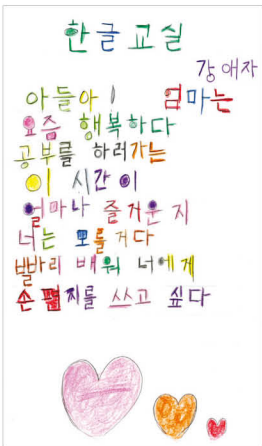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자신감과 학습의욕을 높이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사하구는 성인문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문해 활성화 위한 연계사업과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하

구는 성인문해골든벨 및 시화전 개최, 시화집 발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달빛 한글교실 등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회 성인문해골든벨 및 시화전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이고 해마다 시화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평생학습과 220-4805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봄장터를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설문조사, 앱 홍보,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홍보 펼쳐



갑작스런 꽃샘추위가 찾아 온 지난 4월 7일 다대포 알뜰살뜰 봄장터가 다대포 해변공원 푸른광장에서 열렸다. 광장 입구부터 흥겨운 노래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현장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도 함께 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평생학습관 앱 홍보도 하였다.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압화수첩 만들기(리센동아리), 손거울과 빗(우드버닝동아리), 고무니열쇠고리 만들기(종이비행기동아리)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꽃잎을 붙이는 압화수첩 부스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체험자들로 북적였다. 펠러비즈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아이들은 가방에 걸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나무를 태우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체험은 나무 태우는 냄새가 좋았고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이라 더 재미있었다고 했다.

도자기공예 동아리 '아름다운 손'은 생활도자기 뿐만 아니라 윤홍신장군, 아미



산 전망대와 같이 우리지역을 소재로 한 도자기 작품을 전시해 지나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동화구연 동아리 '동사모'는 직접 바느질로 만든 빅북과 인형을 전시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독서 문화 확산과 작은 도서관 홍보를 위해 헌 책을 새 책으로 교환하고 커피향이 나는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도 있었다.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찾은 전영화(하단1동) 씨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특강만 이용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학습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했다.

사하구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4월 18일 장애인 권익증진 문화축제에도 함께 했으며 하반기 다대 알뜰장터도 찾아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이 재미와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 평생학습을 알게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배워서 남 주고 싶어요

읽고 배우며 나누는 오영미씨를 만나다



내성적인 한 아이는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책을 읽고 자랐다. 그런 독서 습관으로 지금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한 달에 평균 10~15권을 읽는다고 한다. 그녀는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초대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한 오영미(만51세)씨다.

오영미씨는 3년 동안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유치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키워보자는 의욕으로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어르신 스마트폰 강좌, 다독자 시상식, 나눔공동체인 나눔수레와 함께한 동화작가와의 만남 등 강연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위원장 자격으로 초등대상 방학 영어수업,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들의 도서관수업, 중학생 대상 사서직업 알기 체험을 열기도 했다.



오영미씨는 독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성인 독서모임 '서왕설레'를 만들어 현재까지 8년째 이어 오고 있다. 서왕설레 회원들과 의기투합해 청소년들이 책을 사랑하며 토론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당시 초등학교이던 아이들은 벌써 중·고등학생이 되어 사하 독서경

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오영미씨는 무척 보람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감천문화마을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해설사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이수하고 방과 후 독서논술지도사, 인문학 지도사, 심리상담사 2급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많은 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공부란 배워서 남을 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익혀 누군가에 보탬이 되도록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백년인생에 든든한 밑천이예요.”라고 말한다. 늘 독서의 중요성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열정적인 그녀의 행보를 기대한다.

안옥순 평생학습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남녀노소 마음껏 이용하는 문화사랑방

괴정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을 다녀와서

조용하던 도서관이 오후 3시가 지나자 학부모와 아이들의 조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곳은 괴정동에 있는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이다.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이름은 괴정동의 상징인 회화나무에서 가져온 것이다. 약 95평의 규모로 단층이다. 일반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과 강의실, 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책보유량은 1만2천여 권이며 문학류의 책들이 많다. 초등학교생은 학습만화를 즐겨보고, 일반인들은 문학류를 많이 본다고 한다. 특히 일과 여성 특화 코너를 개설하여 경제, 여성, 노인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었다.

하루에 110명 정도가 이용하며 문화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학습실이 별도로 있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남녀노소가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학원가기전 남은 시간에 친구들과 잠시 책을 읽고 숙제도 한다.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강의실을 들여다보며 웃고 계셨다.



최운진(44세, 괴정동)씨는 접근성도 좋고 단층이어서 1주일에 2회 정도 이용한다. 아이는 볼만한 책들이 많아 골라보는 재미를 즐기고 있다. 참 좋은 도서관이라고 칭찬했다. 도서관을 이용한 것이 놀이터 가듯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도서관 자랑을 늘어놓았다.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담당자 박영선 씨는 “도서관 하면

조용함을 상징하지만 책만 있는 곳은 창고일 뿐이다”.라며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남녀노소 마음껏 쉬고 꿈 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

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본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조잘거림과 웃음소리가 공해가 되지 않은 것은 이용자들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 개설한 ‘영화로 배우는 역사’는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 드라마, 고전문학프로그램을 확장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문화 사랑방의 역할과 발전을 기대해본다.

손현아 평생학습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통합대출서비스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최대 5권 15일간 빌릴 수 있어

사하구는 4월 1일부터 통합대출서비스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한다. ‘통합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대도서관이나 사하구 작은도서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통합대출서비스로 다대도서관과 사하구 16개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대출 중인 자료나 참고도서, 방문한 회원이 열람상태인 자료, 잡지, DVD를 제외한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모든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대출서비스 실시와 함께 대여 도서 수가 한 명당 2권에서 통합 5권까지 늘어나고 대출기한도 7일에서 15일로 길어졌다.

통합대출서비스는 사하구 통합회원증이나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책이음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4월 1일 이전에 발급한 기존 작은도서관 회원증은 통합회원증으로 변경해서 이용해야 한다. 통합회원증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다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도서를 통합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

해 보자. 먼저, 다대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검색에서 통합대출 신청을 선택한다. 자료입력란에 ‘김약국의 딸들’을 입력한다. 이용가능한 모든 도서관의 자료가 검색되면 대출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책제목을 선택하고 회원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도서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을 선택하면 된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익일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 볼 수 있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화요일에 일괄 배송 된다. 요청한 도서관으로 도서가 도착하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려준다. 작은도서관마다 도서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찾으러 가는 것이 좋겠다. 다대도서관에서 빌린 도서는 작은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하지만 작은도서관에서 빌린 도서는 책을 받았던 작은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통합대출서비스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대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도서를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어 작은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교구놀이로 다양한 계층을 만나다

우수동아리 '탈무드 Think & Solve 사하 ONE'

사하구에는 다양한 평생학습동아리가 있다. 그중 '탈무드 Think & Solve 사하 ONE' (이하 탈무드)은 3년째 우수동아리로 여러 상을 받았다. 탈무드는 2013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탈무드 창조의 영재 지도사' 강좌에서 시작했다. 강좌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그해 사하구 동아리로 등록하였다. 마침 평생학습관에서 2급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회원들은 2급 심화과정도 수료했다.

탈무드 회원은 무료로 수강한 지도사 과정 강의에 감사한다. 회원들은 무상으로 받은 배움을 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으로 기꺼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선행 때문이었을까, 그뒤 많은 회원들은 실력을 인정 받아 방과 후 교사 등 재취업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20명으로 시작한 회원은 현재 7명이다. 남은 회원들도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학습 멘토, 주민강사 등 프리랜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바쁜 가운데도 각자 1년에 10시간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활동한다. 이에진(39세·신평동) 회장은 '회원들이 배움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관 동아리 재능기부 여름특강 참가 사진

에 대한 열정이 많아 같이 공부하고 서로 협력을 잘한다'며 동아리 활동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자랑했다.

탈무드가 재능기부를 시작할 때는 평생학습관이 주로 주선해 주었다. 지금은 재능기부를 했던 기관에서 특강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활동무대는 지역 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하다. 회원들은 놀이교구를 이용한 수업에서 정신 지체 장애아동의 집중력에 놀랐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접

해보지 못한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좋아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하기도 했다.

이에진 회장은 유치부와 초등 1,2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인성수업을 접목한다. 지난 3월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수업의 주제는 '경청'이었다. 소마큐브를 구성하여 친구에게 설명하게 하고 귀담아들은 다른 친구는 그대로 구성해보는 수업방식이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뿐만 아니라 눈과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라고 설명하자 아이들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자못 진지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교구놀이를 하면서 경청을 배우는 수업이 인상적이었다.

탈무드는 월 2회의 모임을 통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수업계획안을 만든다. 동아리의 목표는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교구놀이 중심으로 다른 교구들과 접목하여 인성교육과 수학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탈무드는 또 꾸준히 봉사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길러나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취업하는 회원을 격려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자격은 탈무드 창의 영재 지도사 3급 소지자여야 한다.

연구와 봉사 그리고 수입까지 창출하는 탈무드는 우수 동아리임에 분명하다. 올해는 동아리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의 전환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는 탈무드의 뜨거운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달빛한글교실

"애벌레가 뭐예요?" "낙타가 뭔지 몰라요"

감감한 일요일 밤 8시 신평공단에 있는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교실에서는 여기저기서 질문이 터져 나온다.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 청년들이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달빛한글교실' 현장이다. '사자가 몇 마리입니까? 다섯 마리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꼭꼭 눌러 쓰며 연습한다. 틀리면 바로 지우고 고쳐 쓴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의욕 넘친다.

네 팔에서 온 청년 네트라(29세) 씨는 모르는 단어는 꼭 물어본다. 한국살이 7년차 답게 한국말은 잘 하지만 한글 쓰기가 힘들다고 한다. 앞으로 3년 정도 일을 더 하고 한글도 더 배워서 네팔에 돌아가면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진지한 눈빛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네트라 씨는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달빛한글교실 강사 은현범(31세·화명동) 씨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학습 의욕이 높고 반응도 좋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이라서 한글을 쓸 때 어순을 어려워한다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수업한다고 말했다. 수강생 대부분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여행 가이드나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활 한국어 위주로 수업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다는 반탄(29세) 씨와 한국 생활 1년차인 텅티엔(29세) 씨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이다. 반탄 씨가 텅티엔 씨의 한글 공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말이 아직 서툰 텅티엔 씨는 "한글 공부를 많이 해서 비자를 받고 싶어요"라고 목표를 얘기했다. 나라가 어디든 한창때인

젊은이들이 휴일에 놀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달빛한글교실은 매주 일요일 밤 8시~10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열린다. 6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중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6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생태고우니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곰솔길, 산새길, 물소리길 등 다양한 탐방코스 운영



2018년 사하자연학교가 문을 활짝 열었다. 사하자연학교는 화·토요일 오전 10~12시 물운대와 승학산 일대에서 열린다. 화요일은 기관을 대상으로 토요일은 가족단위로 진행 한다.

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saha.go.kr>)와 앱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사하자연학교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생태해설사 과정을 통해 양성된 '생태고우니'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직접 물운대와 승학산 곳곳을 다니며 체험에 적합한 곳을 개발했다. 2013년 물운대에서 곰솔길, 갯바위길, 산새길, 파도길 4개의 탐방로를 시작으로 2015년 승학산 물소리길, 숲소리길이 추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운대를 벗어나 다대포 코스를 개발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하자연학교는 전문성을 갖춘 생태해설사와 함께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 꽃, 풀, 곤충을 알아보고, 자연물 만들기 놀이를 진행해왔다. 이런 운영방식에 탐방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2013년 21회 432명 참여했던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늘어 2017년 50회 958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족 탐방은 인기가 높아 오후시간까지 추가되었다.

올해 사하구가 다행복교육지구 선정되어 사하자연학교가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다. 사하자연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을 조화롭게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뜻한 봄, 새로워진 사하자연학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문의: 평생학습과 220-4117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 상반기 자연학교 가족탐방 일정

날 짜	물운대 자연학교	승학산 자연학교
4월	21일(토) 곰솔길(오전)	물소리길(오전)
	28일(토) 산새길(오전,오후)	물소리길(오전·오후)
5월	12일(토) 파도길(오전)	물소리길(오전)
	19일(토) -	물소리길(오전)
6월	2일(토) 곰솔길(오전)	-
	9일(토) -	물소리길(오전)